

기업 취업자 보유 자격 1·2위...‘컴퓨터 활용 능력’

AI 시대, 취업 청년 최다 보유 국가 자격은

신규 취업자 35.1% 국가기술자격...1급 보유자 5473명

내년 시험에 AI 소양 반영...데이터 활용·검증 역량 부각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주요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0대 상장기업의 신규 청년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 활용능력 1·2급’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AI가 산업현장의 업무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실무역량은 여전히 취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한국고용정보

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 청년취업자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새로 취업한 18~34세 청년 6만5743명이다. 이중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2만3055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국가기술자격 보유 청년 가운데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11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9780명으로 42.4%에 달했다.

개별 자격 종목별로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 5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 39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계차운전기능사 1891명, 전기기능사 1814명, 위험물산업기사 1760명, 전기기사 1565명, 산업안전기사 1555명, 산업안전산업기사 15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기사와 일반기계기사도 각각 1287명과 1083명으로 상위 10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권에 컴퓨터활용능력과 정보처리기사 등 디지털 관련 자격뿐 아니라 장비 운전과 전기, 위험물, 산업안전, 기계 분야 자격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기본적인 사무능력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함께 중시한다는 분석이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계한 2025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는 검정형 필기시험 227만1762명과 과점평가형 1만8729명을 합한 총 229만491명이었었다. 종목별로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응시자가 24만78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 15만1464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종목의 응시 인원을 합하면 39만9305명으로 전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17.4%에 해당한다. 지계차운전기능사는 11만316명, 산업안전기사는 9만265명, 전기기능사는 6만7010명으로 각각 3~5위를 차지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에 대한 수요는 최근 10년간 장기 추이에서도 드러났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6년 8만7000명에서 지난해 15만1000명으로 6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특수로 응시자가 급증했던 2021년 36만

5000명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 합격자도 2016년 15만3000명에서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9만5000명 늘었다. 2022년 17만9000명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22만2000명, 2024년 22만60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확산할수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기초 역량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문서 작성과 자료 분석, 정보 검색 등 사무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도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품질이 떨어지거나 결과를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컴퓨터활용능력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무·행정과 실무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단순

한 프로그램 기능 활용을 넘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검증하고 필요한 조건에 맞춰 분석·추출하는 실무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개편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컴퓨터활용능력 필기시험의 새로운 출제기준에는 생성형 AI의 원리와 학습 개념, 활용 사례, 한계와 유의사항 등 실제 업무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이 반영될 전망이다. 김기수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장은 “컴퓨터활용능력이 500대 상장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산업과 업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전력거래소-노조 ‘맞손’...지역사회와 상생 강화

사회공헌 협의체 출범

복지 사각지대·취약층 지원

전력거래소가 노동조합과 손잡고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한다.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력거래소 노동조합과 노·사 공동 사회공헌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노사 화합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담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나주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연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사회공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력거래소 노동조합과 노·사 공동 사회공헌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헌 사업에 대한 심의와 점검, 결과 환류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가 각각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전력거래소는 지역환경 변화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넓힌다.

기존 나주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활동을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추진 방식도 바뀐다. ESG경영처 신설 등 조직개편을 계기로 외부기관과의 협업이나 위탁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이 직접 지역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기관 주도형 체계를 강화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심의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구조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사회공헌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임이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광주·전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천 기자pose007@gwangnam.co.kr

KT, 구글 생성형 AI 결합 ‘초이스 요금제’ 출시

제미니·400GB 클라우드 기본 제공...가족 공유 가능

KT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초이스 요금제’를 선보인다.

KT는 구글의 생성형 AI 혜택을 기본 제공하는 초이스 요금제 신규 라인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요금제는 초이스90 Google AI Plus, 초이스110 Google AI Plus, 초이스130 Google AI Plus, 초이스 더블 유튜브 프리미엄+Google AI Plus 등 4종이다.

신규 요금제 가입 고객은 별도의 구독 절차 없이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니(Gemini)’를 이용할 수 있다. 문서 작성과 검색, 번역, 학습 등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400G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클라우드 저장공간은 가족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저장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AI 활용 목적이나 저장공간 규모에 따라 추가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제공되는 400GB 외에 더 많은 저장공간이 필요한 고객은 월 4400원을 추가해 2TB 용량을 제공하는 ‘구글 AI 플러

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보다 고도화된 AI 기능과 대용량 저장공간을 원하는 경우 월 2만1500원을 추가하면 5TB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구글 AI 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도 마련됐다. 월 12만원에 제공되는 ‘초이스 더블 유튜브 프리미엄+Google AI Plus’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비롯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구글 AI 플러스 400GB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KT는 이번 신규 요금제를 통해 생성형 AI를 별도의 서비스로 이용하는 데 따른 절차를 줄이고, 통신서비스와 AI를 하나의 요금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제미니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검색, 번역, 학습 기능뿐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공간까지 기본 혜택으로 제공하면서 AI 활용과 데이터 저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은 “생성형 AI가 업무와 일상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고객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